인도 최초·최대 규모 온라인 염불축제

아마라바티 불교 유산제 '성료'

인종·성별·종교 불문
모든 문화권 예술 보여줘
불교의 본질 소개하고자
'세계 평화' 궁극적 주제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세계 각국의 스님, 예술가들이 어우러진 아마라바티 축제현장.
사진출처=인디아 익스프레스



아마라바티 축제 현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사진출처=더힌두



각국의 스님들이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염불, 기도, 법문 등을 하기도 했다.
사진출처=힌두스탄타임스

세계 각국의 스님, 예술가 등 사부대중이 세계 평화를 위한 염불을 위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 아마라바티에 모였다. 2월 3~5일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염불을 보여주는 '글로벌 샨티: 아마라바티 불교 유산제(Global Shanti: Amaravati Buddhist Heritage Festival)'가 진행됐다.

2월 3일 '더 힌두' '인디아 타임스'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주요 언론지에서 앞 다퉈 '아마라바티 불교 유산제'에 대해 보도했다. 안드라프라데시 관광청이 주최한 염불축제였다. 이는 세계 최초·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스님, 플루티스트, 타악기 연주자, 가수 등 2천여 명의 참가로 이 축제는 2월 5일 막을 내렸다.

이 축제는 인종,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다. 많은 문화의 여러 종교·연령대의 참가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염불을 했다. 주최측은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불교 성지인 아마라바티에서 이 축제를 기획했다"며 "많은 종교인들의 노래, 명상, 공연, 전통문화 등을 보여줘 불교의 본질을 소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불교 유산을 보유중인만큼 이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3일간 지속된 이 축제는 염불뿐 아니라 토론, 법문, 문화 체험 등이 어우러졌다.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과 문화를 나누는 장이었다. 특히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플루티스트 하리프라사드 차우라시아의 플루트공연은 스님들의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인디아 타임스'는 "인도 불교 관광산업을 미국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런데 불교 관광산업에 관심이 없던 현지 스님들의 관심까지 끌었다. 결국 스님들이 관광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넷을 통한 염불 참여도 가능했는데, 전 세계 4만50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를 외쳤다. '더힌두'는 이 축제를 온라인으로 시청한 사람의 수가 40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했다.

아마라바티의 데비네니 우마헤스와라로 장관은 "아마라바티가 세계평화를 위해 완벽히 한 마음으로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 축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안드라브라데시가 불교유적의 '보물창고'라고 표현했다.

아마라바티는 이 축제를 통해 불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평화'임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현지의 불교 문화유산을 토대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계경제인들 '마음챙김 투게더'

2018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서…

세계 경제인들이 마음챙김을 배우기 위해 모였다.

프랑스 언론 'AFP통신'은 1월 26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경제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프스 산맥이 멀리 보이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총회 '다보스 회의'가 열렸다. 회의실 내부에서는 특이한 장면이 연출됐다. 명상지도자 자얀티 키르팔라니(Jayanti Kirpalani)의 조용한 목소리를 따라 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었다. 아침명상은 이제 이들에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는 중요한 일과가 됐다.

총회에 참석한 프랑스 출신의 마티유 리카르(Matthieu Ricard)스님은 "10년 전엔 다보스 회의에서의 아침명상은 상상도 못했다"며 웃었다. 다보스 회의에 출석한 많은 대표단에게 회의의 안건인 '세계정세의 개선'은 사회적 번영이나 개인적 정의실현을 넘어서, 먼저 몸과 마음의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공감대가 형성 됐다. 특히 최근 들어 '마음의 건강'이 주제로 올라가는 일도 늘어났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수상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에는 두 사람의 요가 지도가가 포함되었다. 23일 연설에 나선 모디 수상은 "요가와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는 몸과 정신, 영혼의 건강 균형을 맞춰준다"고 조언했다.

실업계가 주목하는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마음챙김 훈련은 최근 실업계에서 크게 성황이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주어진 것에 집중하게 하는 마음챙김 훈련은 특히 업무능률을 올리는 데도 효과가 있다. 리카르 스님은 "명상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탈진 증후군과 인간관계 악화라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WE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전 세계에 3억 2천만 명을 웃돌고, 영국의 정책연구소 'Mindfulness Initiative'는 정신건강에 의한 질병발생이 매년 7천만 건을 넘어선다고 발표했다.

미국보건복지국과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다양한 과학적 연구결과에 근간하여 마음챙김이 우울증을 방지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영의회는 2015년 보고서에 마음챙김을 직장에서 실시할 것을 장려했다. 그 결과 마음챙김을 실시한 기업과 연간추정 수십만 달러의 복지비용을 절감했다.

마음챙김과 세계의 발전

아침명상을 주관한 키르팔라니씨는 "명상은 현재 내가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도와준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세계에도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 스님은 "이 포럼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매일 명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출가로 인생 2막, 일본불교계 은퇴출가 '열풍'

오랜 세월의 사회생활 마치고, 출가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정년세대들이 늘고 있다고 2월 2일 일본 '교토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임제종의 대본산 묘신지(妙心寺)에선 2012년부터 정년세대를 대상으로 출가를 권하는 '제 2의 인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묘신지에는 일본 전지역의 3,300여 개소가 넘는 사찰이 등록되어 있으나 그 중 3분의 1은 상주하는 스님이 없는 공찰(空刹)이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정년을 맞이, 은퇴한 세대는 늘고 있다. 여기서 착안, 공찰에는 스님을 제공하고 은퇴자들에겐 다시금 활동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프로젝트의 취지이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450건의 상담이 있었다.

프로젝트를 발의한 묘신지 문도활성화 추진국의 고문 시바타 분케이(83) 스님은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모두 사회와 인생경험이 풍부해 신도들이 더 편하게



사회생활을 마치고, 출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정년세대가 늘고 있다.
사진출처=ATPRESS

상담한다. 더욱이 이렇게 출가자가 늘면 사회에서 불교를 보는 시각도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묘신지의 프로젝트가 매스컴에 보도되고,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자 타 종단에서도 정년세대에 대한 출가체험, 출가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새로운 출가자들을 모으고 있다.

원래 묘신지에선 정식으로 승려가 되기 위해 최소 1년 출가본사에서 수행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참가자에겐 연 2회의 안거와 기본교육과정 이수면 특별히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총 53명이 정식으로 출가했다. 공찰에 관리직으로 파견된 스님은 9명, 정식으로 주지로 취임한 스님은 아직 3명뿐이다. 남은 스님들은 각자의 출가본사에서 수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참가희망자들은 기본교육 이수중이다.

아이치(愛知)현의 테이린지(貞林寺) 관리직으로 파견된 코즈카 분테츠 스님(69)은 "원래는 지인의 회사에 재취직을 생각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알곤 '이렇게 나이든 나라도 스님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바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출가본사에서 수행하던 중 인연이 된 테이린지는 10년간 스님이 없어 황폐해진 도량이었다. 마루는 내려앉고, 비가 샜다. 하지만 분테츠 스님이 새는 도량을 매일 같이 청소하고 수리하니 절을 떠났던 주민들도 하나 둘 다시금 절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다.

분테츠 스님은 신도를 따로 모으지 않고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한다.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참선, 사경으로 수행을 이어나가고, 부동산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해주며 지역사회와 소통한다.

박영빈 객원기자

교도소內 '불상 조각하기' 각광

태국 중범죄자들이 불상을 조각하며 자신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보도가 화제다.

'더네이션 타일랜드포탈'은 2월 5일 '붓다프로젝트가 교도소 수감자들의 미래를 만든다(Buddha project shapes inmates' futures)'는 보도를 통해 교도소 수감자들의 갱생을 위해 불상을 조각하는 붓다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붓다프로젝트는 태국 공주 바즈라키티야바(Bajra Kitiyabha)의 계획으로 시작됐으며 현재 세 교도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도소 간수 나라베스는 "이 프로젝트의 첫 시도에서 14명의 참가자들이 감옥에서 석방된 후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효과를 설명했다. 중범죄로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는 톰(43, 가명)은 붓다프로젝트에 열성을 다해 참여하고 있다. 톰은 "불상을 만들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계속해서 불상을 깎고 스스로를 바라보다 보니 과거 내 잘못이 보였다. 이젠 진심으로 반성한다. 절대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재소자의 수는 30여 명. 이들에 의해 10개의 큰 불상이 만들어진다. 이들이 만든 큰 조각은 사찰이나 병원에 전달된다. 작은 개인 불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재소자들이 직접 만든 불상을 가족들에게 준다. 박진형 기자

